

현직 공기업 간부들 사퇴 않고 선거 출마 논란

현직 유지한 채 출마 선언 ... '도덕적 문제' 지적

출마 선언 장소 고위 임원들 업무시간 참석 논란

오는 6·13 지방선거에 나서는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기업·출자·산하기관 간부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공식 출마 선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예비후보 등록 전 출마선언은 사퇴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지만, 출마 준비에 이어 공식 출마선언까지 하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해 '도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정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출마를 접고 현직을 유지하는 사례도 상당수고, 이들의 늦은 사퇴에 따른 해당 기관의 후속 인사 지연 등으로 업무 공백도 우려되기 때문이다.

다.

12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광주과학기술진흥원 A씨, 광주도시철도공사 B씨, 광주남구문화원 C씨가 각각 출마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현재까지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사직 시점을 늦추면서 생기는 문제점 중 하나는 내부 직원들이 알게모르게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단재장이나 고위 간부가 선거에 출마하면 함께 일을 하는 처지에서 모르는 척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출마선언을 한 이들의 출마 선언

장소에 정식 근무시간임에도 해당 기관의 임원과 다른 기관의 고위 임원들이 대거 참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 때문에 해당 기관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고위 간부의 출마 선언이 있었던 한 기관 관계자는 "현직을 유지하고 출마선언을 하면 업무공백과 함께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여러차례 권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대부분 사퇴 시점을 2월말까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선거일 90일 전인 오는 3월 15일 무렵으로 잡고 있다.

A씨는"사직을 하고 출마 선언을 하는게 맞지만 사직을 한 뒤 별다른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어 업무 공백이 없도록 현직을 유지하는게 낫다고 판단했다"면서 "사퇴 시점은 3월 초순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B씨는 "오는 2월말 임기가 마무리 돼 퇴임을 하는데, 퇴임 전 사직을 하는 게 어려므로 맞지 않아 사퇴 전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C씨도 "설 연휴를 앞두고 사직을 하면 후임 인선이 더욱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출마선언을 먼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광주시청 한 공무원은 "그 동안 출마를 고민하거나 준비중이었다면, 업무 공백이 없도록 사전에 인수 인계를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며 "사퇴 시점이 별로 남지 않았다면 사퇴 뒤 출마선언을 해도 늦지 않을텐데 뭐가 그리 급한지 출마 선언부터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당원명부 유출의혹' 중앙당에 재조사 요구 민주당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6명 공동대응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경선에 뛰어든 출마예정자 6명이 중앙당에 재조사를 요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경선 출마예정자인 강기정 전 의원·민형배 광산구청장·양향자 최고위원·윤정현 광주시장·이병훈 광주 동남을 위원장·최영호 남구청장은 12일 '추미에 대표납매 요청합니다'란 제목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 재조사 요구서를 중앙당에 접수했다.

이들은 "경선의 핵심은 공정성과 여기에 기반한 권위이며, 당원명부 유출 의혹은 이 같은 당의 근간을 흔들고 공정한 경선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면서 "광주시당 자체 조사결과와 과정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또 "유출된 당원명부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와 핵심 당사자인 이용선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대한 직접 조사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문자발송 데이터 취득경로, 실제 발송자, 발송 장소, 발송 비용 등 제기된 의혹 중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당 차원의 전면적이고 엄정한 재조사와 이용선 전 부위원장에 대한 자료제출 재차 요청, 필요할 시 중앙당 차원의 검찰 수사 의뢰 등을 요구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설 성묘 임도 활용하세요"

전남도, 25일까지 2461km 개방

전남도는 설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임도 2461km를 개방한다고 12일 밝혔다.

임도 개방은 성묘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성묘를 다녀오도록 시군 관리임도와 산림청에서 개설한 국유임도까지 포함된다.

오는 25일까지 원칙적으로 개방하지만 여건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산림보호구역과 일반차량의 통행이 어렵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결빙구간, 급경사지 등은 개방하지 않는다.

임도는 산림보호, 산림경영 등 산림사업을 목적으로 개설한 도로다. 경사가 급하거나 급커브 구간이 많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고, 비포장 구간이 많아 승용차의 경우 통행이 어려워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화순 '작은영화관' 개관식 '작은영화관' 화순시네마 개관식이 12일 화순군 화순읍 군민회관에서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과 구중근 화순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순시네마는 2개관 124석(1관 77석, 2관 47석)에 휴게공간, 매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 제공>

송갑석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던 송갑석 사단법인 광주학교 이사장이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후보경선을 준비 중인 송 전 부실장은 12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6월항쟁 민주화 세대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송 전 부실장은 "광주 서구갑 재선거는 한 지역구를 넘어 광주에 그 의미가 중요하고 특별하며 광주가 집권 여당인 민주당 국회의원을 세울 수 있는 결정적 기회"라면서 "청와대, 정부, 여당과 함께 광주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그려갈 광주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드 한파 풀릴까...무안공항~中 상하이노선 다음달 재개

울 들어 이용객 30% 급증

日 키타큐슈 정기노선 전환

무안국제공항이 살아나고 있다. 울들어 무안공항 이용객이 전년보다 30% 급증했다. 여기에 다음 달 무안~상하이 항공노선이 재운항되고, 일본 키타큐슈 노선이 정기노선으로 전환되면 무안공항은 사드 여파 이전보다 훨씬 더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4만533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3만5127명보다 29.1%(1만206명) 증가한 수치다. 제주노선이 확대되고, 국제선 탑승

률이 지난해 79%에서 올해 91%로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1월 6641명이 이용했던 무안공항 국제선 정기노선은 지난해 5월과 10월 상하이·베이징 노선이 각각 중단되면서 올해 이용객은 0명이었다. 하지만 부정기 노선은 지난해 1만8310명에서 올해 2만7621명으로 50.9% 급증했다. 국내선도 아시아의 제주노선 확대로 7579명이 늘어났다.

여기에 다음달 무안~중국 상하이 노선이 재운항하고, 무안~일본 키타큐슈 부정기노선이 정기노선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무안공항은 4월 봄 상춘객 맞이에 분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동방항공은 다음 달 28일부터 무안~상

하이 구간을 주 2회 왕복 운항할 수 있도록 노선허가와 공항시설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무안에서는 매주 수·토요일 낮 12시20분에, 상하이에서는 매주 수·토요일 오전 8시45분에 출발한다.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는 매주 화·금·일요일 무안에서 일본 키타큐슈를 오간다. 무안에서는 오후 6시에, 키타큐슈에서는 오후 7시40분에 출발한다.

무안~베이징 구간 운항을 중단했던 아시아나는 아직 재취항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국제공항은 최근 1년간 국제공항 명칭이 무색하게 정기 국제선이 한편도 없는 상태로 운

영했다. 무안공항은 애초 상하이, 베이징 등 중국 2곳을 오가는 국제선을 정기적으로 운항했다. 그러나 중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조치로 한국 단체관광 전금지령(금한령)을 내려 탑승률이 떨어지자 동방항공은 지난해 5월10일부터 무안~상하이 노선 운항을 일시 중단했다. 아시아나항공도 적자 누적을 이유로 지난해 10월27일부터 무안~베이징 노선 운항을 중단했다.

중국을 오가는 전세계 운항도 대부분 중단돼 지난해 무안공항에서는 러시아, 일본, 베트남, 필리핀, 대만 등을 오가는 18개 부정기(전세기) 노선만 운항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다음달 28일 중국 상하이 노선과 일본 키타큐슈 노선이 정규 노선으로 운항될 예정"이라며 "잠들지 않는 공항"의 강점을 살려 노선 다변화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 광주시교육감 출마

이정선 전 광주교대 총장이 12일 광주시교육감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총장은 이날 오전 광주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회견을 열고 "광주시민과 함께 바꾸고 새로워지라는 마음을 모아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제가 교육감이 되면 교육청에 쏟었던 교육권력을 시민과 교사에게 내어주겠다. 교사는 교육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교육청의 높은 문턱을 없애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조오섭 광주시의원 북구청장 출마 선언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2일 광주 북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민주당 후보 경선을 준비 중인 조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계승과 혁신을 통해 북구를 새롭게 건설하겠다"면서 "북구가 예측 가능한 지방정부를 만들어가는 최선두에 설 수 있어야 하며 북구민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북구의 행복과 발전을 이뤄내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성공하게 하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TÉLÉSIS Paris

텔레스이스는 지적인 능력으로 자기목적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파리 패션 위크 데뷔와 함께 패션문화거리 마레지역에서 활동했던 텔레스이스는 2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정된 트렌드에서 벗어나 로맨틱 감성을 바탕으로 과장되지 않는 디테일 속에서 Chic & Unique한 자기 표현을 연출합니다.

Tel.062 223 19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6-11
ACC디자인호텔 1F

MUSTARD Mustard 14.900	KHAKI BEIGE Khaki Beige 14.900	ELEPHANT GREY Elephant Grey 14.900
SPRUCCO Sprucco 14.900	DRY SAGE Dry Sage 14.900	

-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졸업
- 파리 ESMOD 의상학교 Styliste 전공
- 파리 FLEURIMON 메이크업 전공
- CLAUDE MONTANA 디자이너
- LUC SAINT ALBAN 프리랜서
- BALANCIAGA 프리랜서
- PRET A PORTER PARIS Atmosphere(2002~)
- 진시 다수참여
- 2002~TELESIS 총괄디자이너 & 브랜드 운영